

대학생의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과 제노포비아와의 관계: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전 명 심 이 영 선†

건양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향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인 제노포비아의 예측요인으로서 대학생들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은 많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의 예측 요인으로 주목되어왔으며, 비인간화는 제노포비아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여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고려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신뢰할 수 없는 응답을 제외한 후, 총 191명의 자료를 SPSS 21과 PROCESS Macro v4.1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제노포비아는 서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우익권위주의는 제노포비아와의 관계에서 직접효과와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반면에, 사회지배지향성은 제노포비아와의 관계에서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차 요인들이며 이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제노포비아,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비인간화, 이주민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2023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이영선,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32992)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56

E-mail: s2coun11@hanmail.net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낯선 사람 또는 외국인, 외부인을 의미하는 'xenos'와 공포를 의미하는 'phobos'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어 합성된 용어로서(Bozdağ, 2020),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비이성적 두려움, 혐오감, 편견,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 등을 의미한다(김용신, 2014; 황미애, 2020; Bozdağ, 2020; Yakushko, 2009). 보다 넓은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내집단과 다르고, 낯설고 이질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그들을 향한 두려움, 혐오와 증오, 거부적이고 적대적 태도, 편견, 공격적 행동 등을 포괄한다(Genkova, & Grimmelsmann, 2022; Mudde, 1999; Ullah & Haque, 2014, 2020; UN, 2016). 민족이나 국적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출신지역, 성별, 연령, 종교, 문화, 성적 지향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해 소수 집단은 주류사회 정체성의 외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류집단에게는 이질적인 외부인이 되어 제노포비아의 대상이 될 수 있다(Mudde, 1999; Ullah & Haque, 2014, 2020; UN, 2016).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의미로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제노포비아에 관심을 두고 제노포비아의 예측요인으로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에 주목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이주민 현황과 제노포비아

글로벌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주민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박효민, 박영실, 김월화, 이영미, 2018). 유엔국제이주기구(2023)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30명 중의 1명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한국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장주영, 김수경, 2020).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제결혼의 활성화로 결혼이주민 역시 증가하였다. 한국의

이주배경인구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줄었지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22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약 5%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한국은 OECD 기준의 다문화, 다인종국가로 변화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법무부는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이용승, 심승우, 2023).

제노포비아는 서구의 선진국들에서 인종주의와 맞물려 사회문제와 집단 간 갈등을 야기해 왔지만, 현재는 산업화된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며(송태수, 2006), 911 테러와 코로나19 이후 제노포비아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Dhanani & Franz, 2021; Schüller, 2016). 한국에서도 다문화에 반하는 혐오 정서는 2010년 이후 일간베스트의 등장과 더불어 표출되기 시작하여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홍성수, 2016), 최근에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발단으로 하여 이주민들과 지역사회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육주원, 이소훈, 2022). 한국에서 제노포비아로 인한 사회문제가 아직까지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제노포비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박효민 외 2018).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발전하는 것은 기존 사회 구성원들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혜숙 외, 2011; Bozdağ, 2020; Chung, Bemak & Grabosky, 2011).

제노포비아의 예측요인으로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

제노포비아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와 사회지배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이 주목받아왔다. 우익권위주의는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과 Sanford(1950)이 제시한 잠재적 파시스트 성향이자 편견적인 성격으로서의 권위주의 성격을 Altemeyer(1981)이 재개념화한 것으로,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관습을 고수하며 비순응자들에게 공격성을 나타내는 개인의 성격 혹은 심리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Altemeyer, 1996, 2007; Duckitt 2015; Duckitt & Sibley, 2017). Altemeyer(1996)는 Milgram(1963, 1974/2009)의 실험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자의 승인 하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상황적 압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우익권위주의 척도를 개발했다고 하였다.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적 단결, 안전, 통제 가치를 추구한다(Duckitt 2015; Duckitt & Sibley, 2017). 그들은 자신을 내집단과 동일시하며 이주민들을 포함한 소수집단들이 내집단의 가치와 응집,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여 편견과 차별, 적대감을 나타낸다(이상신, 2015; Asbrock, Christ, Duckitt & Sibley, 2012; Duckitt 2015; Kauff, Asbrock, Thörner, & Wagner, 2013; Vallejo-Martín, Canto, San Martín García & Perles Novas, 2021).

사회지배지향성은 집단 안에서 내집단의 위치와 관계없이 집단에 기반한 위계적 사회구조를 선호하며 집단 간 불평등을 열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성격 혹은 심리사회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Duckitt 2015; Duckitt & Sibley, 2017; Pratto, Sidanius, Stallworth & Malle, 1994; Sidanius, Cotterill Sheehy-Skeffington, Kteily & Carvacho, 2017).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집단들에 대해 우월적, 계층적 인식을 가지고,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기를 바라고 불평등한 위계적 사회시스템을 선호하여 강화, 유지하고자 한다. 그들은 집단의 불평등이 사회에 더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합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억압을 공고화 한다.

어떤 외집단 혹은 어떤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편견의 일반화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서로 다른 집단들에 대한 편견들 간의 관련성을 통해 지지되었다(김상학, 2004; Adorno et al., 1950; Allport, 1954/2020; Mcfarland, 2010). 결국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연구자들은 편견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등 개인 변인에 관심을 가져왔다(Adorno et al., 1950; Altemeyer, 1998; Pratto et al., 1994).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은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집단들에 대한 대부분의 편견을 예측하고 그 편견을 유지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개인차로 보고되었다(Altemeyer, 1998, 2007; Asbrock, Sibley & Duckitt, 2010; Duckitt & Sibley, 2007; Pratto et al., 1994). 또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없으며(이하연, 최훈석, 권영미, 박주화, 2021; Altemeyer, 1998, 2004; Duckitt, 2001; Duckitt & Sibley, 2007, 2010, 2017; Duckitt, Wagner, du Plessis & Birum, 2002; Mcfarland, 2010; Perry, Sibley & Duckitt, 2013), 다양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예측하는 변인들임이 종단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Asbrock et al., 2010; Kteily, Sidanius, & Levin, 2011).

Thomsen, Green과 Sidanius(2008)는 우익권위주의나 사회지배지향성은 모두 편견이나 제노포비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이주민들을 박해한다고 보고하였다.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기존 주민의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이주민들에 대해 공격적인 반면,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기존 문화에 동화되는 이주민들에 대해 공격성을 나타내는데, 동화는 기존의 지위 경계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범주화, 사회의 환경 등에 따라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

향성은 제노포비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Cohrs & Stelzl, 2010; Dru, 2007; Duckitt & Sibey, 20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익권위주의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상신, 2015; Charles-Toussaint & Crowson, 2010; Kauff et al., 2013)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철용, 2019; 황미애 2020; 황세영 2017; Costello & Hodson, 2011; Duckitt & Sibley, 2007; Esses, Jackson & Armstrong, 1998; Esses, Veenvliet, Hodson & Mihic, 2008)가 있으며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모두 영향을 준다는 연구(Asbrock et al., 2012; Craig & Richeson, 2014; Hodson, & Costello, 2007; Hodson, Hogg & MacInnis, 2009; Sirlopú & Van Oudenhoven, 2013; Vallejo-Martín et al., 2021)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김철용, 2019; 김혜숙 외, 2011; 류승아, 2017; 양계민, 2009, 황미애 2020; 황세영 2017; 황은영, 2014) 아직 편견이나 제노포비아 형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변수로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인간화와 제노포비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해있어 동질감을 느끼는 '우리'와 자신이 속해있지 않고 경쟁적이고 이질감, 적대감을 느끼는 '그들'을 범주화하여 인식하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속성을 자신이나 내집단에 더 부여하고 외집단에는 덜 부여하여 비인간화하는 경향이 있다(Haslam, Bain, Douge, Lee & Bastian, 2005; Leyens et al., 2000, 2001). 타인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개별성, 주체성, 2차 감정이나 따뜻함, 유능함의 속성, 서로 연결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인간화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

에 대해 이러한 인간성들이 결여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Gray, Gray & Wegner, 2007; Harris & Fiske, 2006; Kelman, 1973; Leyens, 2000, 2001). 최근 주목받고 있는 Haslam(2006; Haslam & Loughnan, 2014)의 비인간화 이중모델에서는 어떤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해 따뜻함, 주도성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인간 본성)이나 교양, 합리성 등의 속성(인간 독특성)이 결핍되었다고 인식할 때 대상에 대해 비인간화 인식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어떤 대상이 비인간화되어 인식될 때, 대상은 상호 연결된 돌봄, 도덕적 규칙, 공정성이 고려되는 경계 밖으로 배제된다(Kelman, 1973; Opatow, Gerson & Woodside, 2005). 따라서 가해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사고나 신념을 정당화하여 도덕적 자기 규제를 해제하고 죄책감 없이 차별, 배제, 착취, 처벌, 폭력 등의 충동이나 행동을 합리화 할 수 있다(Bandura, 1999).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적에 대한 비인간화는 폭력, 범죄, 대량학살, 전쟁 등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Bandura, 1999; Kelman, 1973; Haslam, 2006; Haslam & Loughnan, 2014).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이주민과 같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을 비인간화하여 인지하는 경우 사회적 용인 하에 그들을 향한 정당화된 차별, 폭력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제노포비아가 지속될 수 있다(Bandura, 1999; Esses & Hodson, 2006; Haslam & Loughnan, 2016; Kelman, 1973). 비인간화로 인식된 사람들은 공정성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권리의 박탈,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방관자들에 의해 이들의 피해는 축소되거나 과소평가 될 수 있어(Opatow et al., 2005),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Leyens et al., 2000; Vaes, Paladino, Castelli, Leyens, & Giovanazzi, 2003). 또한, 이런 비인간화됨의 지각(메타비인간화)은 다시 가해자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로 이어져 순환적 고리를 만들고 집단 간, 대인 간 갈등과 공격성이 증폭되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김소은,

2020; Bastian & Haslam, 2010; Kteily, Hodson & Bruneau, 2016; Landry, Ihm & Schooler, 202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이민 반대, 망명거부, 외집단 차별에 대한 지지, 테러 응징의 지지, 편견 등 제노포비아와 많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Kteily, Bruneau, Waytz & Cotterill, 2015; Maoz & McCauley, 2008; Pereira, Vala & Leyens, 2009; Vaes et al, 2003).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비인간화, 제노포비아의 관계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덜 인간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집단을 비인간화하기 쉽다. Kteily 등(2015)은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외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지배성이 명시적 비인간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Jackson과 Gaertner(2010)의 연구에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적에 대한 비인간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지배지향성이 비인간화를 매개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반이주민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었다(Costello & Hodson, 2011; Trounson, Critchley & Pfeifer, 2015). 특히 Hodson와 Costello(2007)는 대인혐오민감성이 사회지배지향성과 우익권위주의를 매개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사회지배지향성은 비인간화를 매개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sses 등(2008)은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난민들을 비인간화하여 난민들이나 난민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우익권위주의와 제노포비아와의 관계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의 지배성이 높은 사람들은 각각 비인간화를 매개로 하여 테러리스트, 비전투요원 포로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고문 행위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Lindén, Björklund & Bäckström, 2016).

연구가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익권위주의나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제노포비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제노포비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노포비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각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제노포비아에 주목하고, 제노포비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중과정을 허용함으로써 각 예측요인들의 고유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Hayes, 2013/2015). 또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서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20대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대 대학생들은 초·중·고 시기와는 달리 대학에서 다양한 이주민 유학생들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 가설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고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가설 1. 대학생의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제노포비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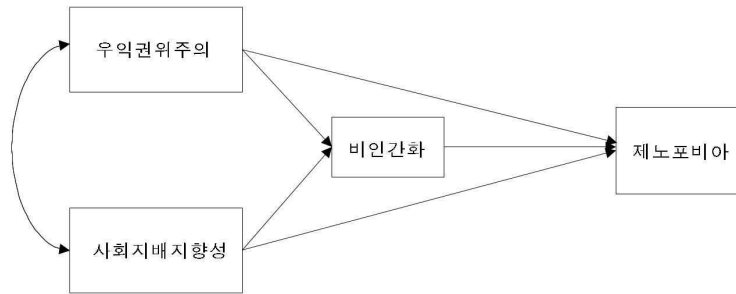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2. 대학생의 우익권위주의는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를 통해 제노포비아를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사회지배지향성은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를 통해 제노포비아를 예측할 것이다.

(75.9%)으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이주민과의 상호작용경험 유무는 96명(50.3%) 대 95명(49.7%)으로 비슷하였다. 해외 체류 경험에 대해서는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이 149명(78.0%)으로 없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측정도구

방 법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본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ltemeyer(1998)의 RWA척도를 채택하고 김재신(2003)이 번안한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원저자의 의도대로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Altemeyer는 우익권위주의에 권위주의적 복종성, 권위주의적 공격성, 인습주의의 3개의 개념을 포함하였지만, 본질적으로 단일차원으로 보았으며 의도적으로 여러 문항들을 2개, 3개의 개념들로 구성하여 RWA 척도를 개발하였다. 최근에 척도의 길이나 구조방정식 등 방법론적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원척도를 바탕으로 3차원으로 구성된 몇몇 단축 척도들(Bizumic & Duckitt, 2018; Duckitt, Bizumic, Krauss & Heled, 2010; Dunwoody & Funke, 2016; Funke, 2005)이 개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Altemeyer의 RWA척도는 지금도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선택하는 척도이며, 일반적으로 우익권위주의를 측정하는 좋은 척도로 간주된다(Bizumic & Duckitt, 2018;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KYU 2022-05-011-001)을 받고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전국의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수집된 설문부수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4분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설문시간이 4분미만으로 빠르게 응답한 자료 53부(총 22.0%)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파악되어 제외하고 총 244명의 자료 중 191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남학생은 60명(31.4%), 여학생은 131명(68.6%)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나이는 25세 이하가 161명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하였다. 전공계열의 비율은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출신지역의 비율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126명(66.0%)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는 사람이 145명

Conway, Houck, Gornick & Repke, 2018; Dunwoody & Funke, 2016; Funke, 2005). 각 문항들의 응답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7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우리 사회를 망치는 급진주의적 방식과 사회악을 몰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에 도전하고 종교를 비판하며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통상절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등이 있다. 김재신(200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사회지배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Pratto 등(1994)의 척도를 바탕으로 Sidanius, Levin과 Pratto(1996)가 개발한 SDO₆ 척도를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과 김진형(2012)이 번안하고 남상희(201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지배지향성 척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었고(Pratto et al., 1994),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타당성의 증거들이 확인되었다(Ho et al., 2012; Jost & Thompson, 2000). 척도는 지배성과 반평등성의 2개 개념으로 구성되고 각각 8문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들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7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포함된 문항으로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집단 간 평등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다. 남상희(201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88로 같았다.

비인간화(Dehumanization)

Delbos, Naznin, Haslam와 Haworth(2019)의 연구에 제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김소은(2020)의 번안을 참고하였다. 척도는 인간 독특성과 인간 본성을 나타내는 2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

며 각각 4개의 문장,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지시문에 이주민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묻는 문항들임을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그들은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것 같다’, ‘그들은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을 것 같다’ 등이 있다. Delbos 등(201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

김용신(2014)과 황은영(2014)이 제작하고 황미애(2020)가 수정한 16문항의 제노포비아 척도를 대학생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척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4개 사례와 각 사례마다 포용, 활동 찬성, 권리 인정, 추방의 정도를 측정하는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된 제노포비아 척도는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의 검토를 통해 구성타당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전명심, 2023). 제노포비아 척도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합니까?’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황미애(2020)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노포비아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결 과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SPSS 21과 SPSS PROCESS Macro v4.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이변량 상관계수들과 기술통계치들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우익권 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의 제노포비아와의 관계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번과 10,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익권위주의와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는 제노포비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해외 체류 경험과, 다른 독립변수인 사회지배지향성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지배지향성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해외 체류 경험과, 나머지 독립변수인 우익권위주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들, 인구학적 정보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들과 기술통계치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절대값이 0.5 미만으로 확인되어,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상관분석 결과들을 보면, 우선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 = .47, p < .01$)를 나타내었다. 제노포비아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에 대해 모두 낮은 정적 상관관계($r = .39, p < .01; r = .37, p < .01$)를 나타내었고, 우익권위주의와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비인간화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에 대해서 낮은 정적 상관관계($r = .34, p < .01; r = .39, p < .01$)를 나타내었고, 사회

표 1.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 우익권위주의	-								
2. 사회지배지향성	.47**	-							
3. 비인간화	.34**	.39**	-						
4. 제노포비아	.39**	.37**	.61**	-					
5. 성별(남자: 1)	.15*	.28**	.12	-.03	-				
6. 나이	.02	.12	.12	.12	.17*	-			
7. 거주 지역 규모 (군읍면: 0, 도시: 1, 광역시 이상: 2)	.06	.08	.07	-.08	.18*	.08	-		
8. 종교(있음: 1)	.28**	.00	-.06	.06	-.01	-.01	.07	-	
9. 접촉경험(있음: 1)	-.14	.01	-.01	-.02	-.05	-.01	.02	.05	-
10. 해외 체류 경험(있음: 1)	.03	.14	.14	.15*	.14	.22**	.15*	.03	.08
평균	101.05	50.79	30.40	44.05					
표준편차	19.88	14.41	7.17	9.73					
왜도	-.35	.21	.04	.28					
첨도	-.20	.59	.19	.47					

N = 191; * $p < .05$, ** $p < .01$

지배지향성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제노포비아는 비인간화와 다소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61, p < .01$). 따라서 가설 1과 관련하여,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 비인간화, 제노포비아는 서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유일하게 해외 체류 경험이 제노포비아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해외 체류 경험을 이후의 연구모형 분석에서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익권위주의와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가설 2와 관련하여, 우익권위주의가 제노포비아를 예측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고 해외체류경험(인구학적 정보)과 사회지배지향성을 통제한 후 분석을 하였다. 표 2의 상단에서와 같이 우익권위주의는 비인간화를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 \beta = .21, p < .01$). 또한, 표 2의 하단에서와 같이, 우익권위주의와 비인간화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우익권위주의와 비인간화는 각각 제노포비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 = .09, \beta = .18, p < .01$; $B = .70, \beta = .51, p < .001$). 이 결과들은 그림 2에 경로계수들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체류경험과 사회지배지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익권위주의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표 3의 상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총 효과($B = .14, 95\% CI = [.07 \sim .21], \beta = .29$)와 직접 효과($B = .09, 95\% CI = [.03 \sim .15], \beta = .18$), 그리고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B = .05, 95\% CI = [.01 \sim .09], \beta = .11$)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결국 우익권위주의는 사회지배지향성과 독립적으로 제노포비아를 예측하며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를 통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표 3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사회지배지향성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가설 3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를 예측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고 해외체류경험(인구학적 정보)과 우익권위주의를 통제한 후 분석을 하였다. 표 2의 상단과 같이, 사회지배지향성은 비인간화를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4, \beta = .28, p < .001$),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은 비인간화의 분산을 19% ($F = 14.95, p < .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하단에

표 2. 매개모형의 단계별 회귀분석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우익권위주의	-> 비인간화	.07	.03	.21	2.75**	.19	14.95***
	사회지배지향성		.14	.04	.28	3.76***		
2단계	우익권위주의	-> 제노포비아	.09	.03	.18	2.78**	.42	33.50***
	사회지배지향성		.05	.04	.07	1.06		
	비인간화		.70	.08	.51	8.25***		

N = 191; **p < .01, ***p < .001

서와 같이, 사회지배지향성과 비인간화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사회지배지향성은 제노포비아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B = .05, \beta = .07, p = .29$), 비인간화는 제노포비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B = .70, \beta = .51, p < .001$). 사회지배지향성은 제노포비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해외체류경험, 우익권 위주의와 비인간화를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는 사회지배지향성은 제노포비아에 대해 유의미한 편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및 비인간화는 제노포비아의 분산의 42%($F = 33.50, 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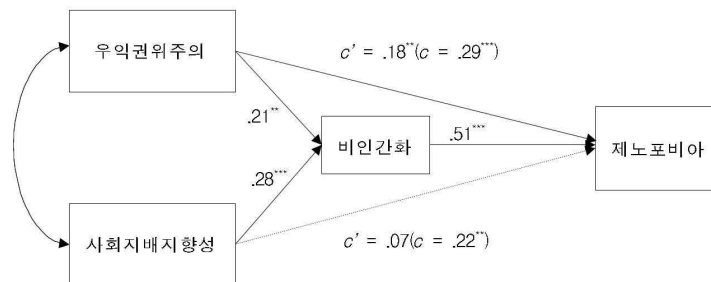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해외체류경험과 우익권위주의를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를 설명하는 경로를 보면 표 3의 하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효과($B = .15, 95\% CI = [.05 \sim .25], \beta = .22$)는 유의미했지만, 직접효과($B = .05, 95\% CI = [-.04 \sim .14], \beta = .07$)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B = .10, 95\% CI = [.04 \sim .16], \beta = .15$)만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사회지배지향성은 주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를 통해서 제노포비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과 각각의 경로계수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각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로 나타냈으며, c 는 직접효과의 경로계수이고, 괄호 안의 c' 는 총 효과의 경로계수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의하여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효과는 총 21%($F = 16.17, p < .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의 제노포비아와의 관계에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경로	효과	B	SE	β	95% CI		
						하한	상한	
우익권위주의	->	제노포비아	총 효과	.14	.04	.29	.07	.21
우익권위주의	->	제노포비아	직접효과	.09	.03	.18	.03	.15
우익권위주의	-> 비인간화 ->	제노포비아	간접효과	.05	.02	.11	.01	.09
사회지배지향성	->	제노포비아	총 효과	.15	.05	.22	.05	.25
사회지배지향성	->	제노포비아	직접효과	.05	.05	.07	-.04	.14
사회지배지향성	-> 비인간화 ->	제노포비아	간접효과	.10	.03	.15	.04	.16



주. 모든 숫자는 표준화 계수.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과 경로계수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에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노포비아 문제에 접근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고려하여 제노포비아에 대한 각각의 고유한 효과를 확인하고 제노포비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비인간화를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제노포비아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인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은 중간 정도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었고, 모두 제노포비아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제노포비아를 예측하였다. 많은 연구들, 특히 종단 연구들(Asbrock et al., 2010; Kreily, Sidanius, & Levin, 2011)을 통해 대부분의 외집단에 대한 편견에 인과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은 한국 대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설명하였다. Cohrs와 Stelzl(2010)의 메타분석연구에 의하면 우익권위주의는 이주민들이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반이민 태도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지배지향성은 이주민들의 실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국가들에서 반이민적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주민들을 기존 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의 낮은 지위의 집단으로 인식하여 각각 제노포비아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화는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인간화는 제노포비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이주민에 대해 비인간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제노포비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

락이라고 할 수 있다(Esses et al., 2008; Kreily et al., 2015; Vaes et al., 2003).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은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두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각 나라의 정치, 문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Duriez, Van Hiel & Kossowska, 2005; Perry, Sibley & Duckitt, 2013), 좌익과 우익이 두드러지는 사회에서 커지며 정치가 이념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Duckitt et al., 2002).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치열했던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내 선행연구들(나우빈, 2011; 남상희, 2014)에서 보고된 값들 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해외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는 범위에 있다(Perry et al., 2013).

둘째, 우익권위주의는 제노포비아에 대해서 직접효과와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총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제노포비아를 높게 나타내고, 특히 이주민들을 비인간화하여 인식할수록 더욱 제노포비아를 높게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익권위주의가 제노포비아에 주는 효과는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 보다 직접효과가 2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익권위주의가 제노포비아에 주는 효과는 비인간화를 통한 매개효과보다 비인간화와는 독립적으로 우익권위주의가 제노포비아를 설명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위협하고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이주민들을 경계하여 배척하며 제노포비아를 나타낼 수 있다(Asbrock et al., 2012; Charles-Toussaint et al., 2010; Craig et al., 2014; Duckitt & Sibley, 2010; Esses, Dovidio, Jackson & Armstrong, 2001; Kauff et al., 2013; Vallejo-Martín et al., 2021). Hodson와

Costello(2007)의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는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나타났고,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Linden 등(2016)의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가 비인간화를 완전매개로 하여 적군 포로에 대한 금지된 고문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결과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비인간화의 매개효과는 더욱 적대적인 제노포비아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지배지향성과 제노포비아와의 관계에서는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총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주민들을 비인간화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를 통해 더욱 제노포비아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인간화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 가혹한 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여 제노포비아를 유지하고 영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Bandura, 1999; Esses & Hodson, 2006; Esses et al., 2008; Haslam & Loughnan, 2016.; Hodson & Costello, 2007; Trounson et al., 2015). 선행연구들(Costello & Hodson, 2011; Esses et al., 2008; Hodson & Costello, 2007; Lindén, et al., 2016; Trounson et al., 2015)에서는 사회지배지향성은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주고 비인간화를 통한 간접효과 혹은 직접효과들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약육강식의 위계적 구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주민들을 사회의 열등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여 편견과 차별을 나타낼 수 있다(Asbrock et al., 2012; Craig & Richeson, 2014; Duckitt & Sibley, 2010; Esses et al., 1998, 2001; Ward & Masgoret, 2006). 정진경과 양계민(2004)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동남아 출신의 이주민들에 대해 특히 차별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관습과 후진국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동남아 출신의 이주민들에게 인종적 위계적식을 가지고 이들을 덜 인간적이라고 느끼며, 제노포비아를 높게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적, 횡단적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모형이 설정되었고,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단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로서 변인 간의 인과적 해석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 과정에서 비인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의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로서, 특히 비인간화 척도와 제노포비아 척도의 강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각각의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는 이론적인 연구들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양한 관점의 제노포비아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제노포비아는 사회학, 사회심리학, 정신병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가진 다차원적 개념이며(Gezer & Ilhan, 2022), 제노포비아의 대상은 기간만료 체류자, 외국인, 타 지역 출신자, 더 넓게는 자신과 다르다고 느끼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관점들과 다른 대상의 범위에 대해 몇 가지 제노포비아 척도들이 개발되었지만(Olonisakin & Adebayo, 2021; Symeonaki & Kazani, 2012; van der Veer, Ommundsen, Yakushko, Higler, Woelders & Hagen, 2013), 국내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제노포비아의 관점과 대상, 혹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한국판 제노포비아 척도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제노포비아의 유발 원인으로 개인차에 주목하여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집단 간

갈등은 집단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집단 간 갈등의 유발요인으로 주목되어 온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정체성, 전통적 가치나 문화 차이 등과 관련된 지각된 위협은 또 다른 제노포비아 유발 원인이 된다. 제노포비아가 발생하는 상황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과 같은 개인차 외에도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 그리고 이에 대한 위협 지각과 해석을 포함한 폭넓은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보완된다면 제노포비아를 비롯한 집단 간 혹은 개인 간 편견과 혐오의 기제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전명심은 건양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워너스케이엠에 상담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성격, 성격장애, 집단 간 갈등, 편견과 차별, 비인간화, 사회통합 등이다.

이영선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교육심리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격, 상담윤리, 비대면상담 분야이다.

참고문헌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 169-206.
 김소은 (2020). 여성 증오표현에 대한 노출과 비인간화, 공격적 행동의 관계: 성별 갈등 현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신 (2014).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축. *국제지역연구*, 18(1), 173-199.
 김재신 (2003).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권위주의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용 (2019). 외국인 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편견, 사회적 거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나우빈 (2011).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및 접촉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상희 (2014). 정치성향의 세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평등에 대한 수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박효민, 박영실, 김월화, 이영미 (2018). 이주상태 (migration status) 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제안: 조사통계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23(2), 50-73.
 송태수 (2006). 현대 유럽의 제노포비아 (Xenophobia) 현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 비교. *유럽연구*, 23, 253-282.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유엔국제이주기구 (2023). One in 30 persons are migrants. <https://www.iom.int/about-migration>에서 2023. 01. 06 인출.
 육주원, & 이소훈 (2022).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아시아*

- 리뷰, 12(1), 33-65.
- 이상신 (2015).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정요인 연구: 우파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연구*, 8(2), 39-67.
- 이용승, 심승우 (2023). 이주민의 참정권 논쟁과 다문화 민주주의의 모색. *시민사회와 NGO*, 21(1), 263-297.
- 이하연, 최훈석, 권영미, & 박주화 (2021). 사회적 신념 및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5(4), 27-47.
- 장주영, 김수경 (202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554
- 전명심 (2023). 대학생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비인간화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한 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 김진형 (2012). 한국인의 마음지도 I: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35-464.
-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
- 홍성수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0-0.
- 황미애 (2020).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세영 (2017). 사회지배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영. (2014). 제노포비아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 Allport, G. W. (2020). 편견: 사회심리학으로 본 편견의 뿌리 [*The nature of prejudice*]. (석기용 역). 서울: 교양인. (원서출판: 1954)
- Altemeyer, 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Harvard University Press.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47~92. Academic Press.
- Altemeyer, B. (2004). Highly dominating, highly authoritarian personaliti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4(4), 421-448.
- Altemeyer, B. (2007). *The authoritarians*. Winnipeg, Canada: University of Manitoba.
<https://theanarchistlibrary.org/mirror/b/ba/bob-altemeyer-the-authoritarians.a4.pdf>
- Asbrock, F., Sibley, C. G., & Duckitt, J. (2010). Right 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the dimensions of generalized prejudice: A longitudinal test.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4(4), 324-340.
- Asbrock, F., Christ, O., Duckitt, J., & Sibley, C. G. (2012). Differential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for authoritarians and social dominators: A dual process model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4), 477-490.
-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3), 193-209.
- Bastian, B. & Haslam, N. (2010). Excluded from humanity: The dehumanizing effects of social

-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1), 107-113.
- Bizumic, B., & Duckitt, J. (2018). Investigating right wing authoritarianism with a very short authoritarianism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6, 129-150.
- Bozdağ, F. (2020). Xenophobia and social contact in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Literacy Studies*, 8(4), 87-97.
- Charles-Toussaint, G. C., & Crowson, H. M. (2010). Prejudice against international students: The role of threat perceptions and authoritarian dispositions in US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4(5), 413-428.
- Chung, R. C. Y., Bemak, F., & Grabosky, T. K. (2011). Multicultural-social justice leadership strategies: Counseling and advocacy with immigrants. *Journal for Social Action in Counseling & Psychology*, 3(1), 86-102.
- Cohrs, J. C., & Stelzl, M. (2010). How ideological attitudes predict host society member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xploring cross 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Issues*, 66(4), 673-694.
- Conway III, L. G., Houck, S. C., Gornick, L. J., & Repke, M. A. (2018). Finding the Loch Ness monster: Left-wing authoritarianism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Psychology*, 39(5), 1049-1067.
- Costello, K., & Hodson, G. (2011). Social dominance-based threat reactions to immigrants in need of assista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2), 220-231.
- Craig, M. A., & Richeson, J. A. (2014). Not in my backyard!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support for strict immigration policies at home and abroad. *Political Psychology*, 35(3), 417-429.
- Delbosch, A., Naznin, F., Haslam, N., & Haworth, N. (2019). Dehumanization of cyclists predicts self-reported aggressive behaviour toward them: A pilot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62, 681-689.
- Dhanani, L. Y., & Franz, B. (2021). Why public health framing matters: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COVID-19 framing on prejudice and xenophobia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269, 113572.
- Dru, V. (2007).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Effects of various self-categorization condi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6), 877-883.
- Duckitt, J. (2001). A dual-process cognitive-motivational theory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41-113. New York: Academic Press
- Duckitt, J. (2015). Authoritarian personalit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2, 2.
- Duckitt, J., Bizumic, B., Krauss, S. W., & Heled, E. (2010). A tripartite approach to right wing authoritarianism: The authoritarianism conservatism-traditionalism model. *Political Psychology*, 31(5), 685-715.
- Duckitt, J. & Sibley, C. G. (2007). Right 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the dimensions of generalized prejudi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1(2), 113-130.
- Duckitt, J., & Sibley, C. G. (2010).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differentially moderate intergroup effects on prejudi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4(7), 583-601.
- Duckitt, J., & Sibley, C. G. (2017). The dual process motivational model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C. G. Sibley & F. K. Barlow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 (pp. 188-220).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ckitt, J., Wagner, C., du Plessis, I., & Birum, I. (2002). The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prejudice: testing a dual proces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75.
- Dunwoody, P. T., & Funke, F. (2016). The Aggression-Submission-Conventionalism Scale: Testing a new three factor measure of authoritarianism.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4*(2), 571-600.
- Duriez, B., Van Hiel, A., & Kossowska, M. (2005).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The importance of the sociopolitical context and of political interest and involvement. *Political Psychology, 26*(2), 299-320
- Esses, V. M., Dovidio, J. F., Jackson, L. M., & Armstrong, T. L.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389-412.
- Esses, V. M., & Hodson, G. (2006). The role of lay perceptions of ethnic prejudice in the maintenance and perpetuation of ethnic bias. *Journal of Social Issues, 62*(3), 453-468.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Esses, V. M., Veenvliet, S., Hodson, G., & Mihic, L. (2008). Justice, morality, and the dehumanization of refugees. *Social Justice Research, 21*(1), 4-25.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 Funke, F. (2005). The dimensionality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Lessons from the dilemma between theory and measurement. *Political Psychology, 26*(2), 195-218.
- Genkova, P., & Grimmelsmann, M. (2022). Investigating interculturality in Germany by means of social identity, social distance, personality and xenophobia. *Migration and Development, 11*(3), 314-333
- Gezer, M., & İlhan, M. (2022). Adaptation of Xenophobia Scale to Turkish: A Validity and Reliabilit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Educational Studies, 9*(1), 230-243
- Gray, H. M., Gray, K., & Wegner, D. M. (2007). Dimensions of mind perception. *Science, 315* (5812), 619-619.
- Harris, L. T., & Fiske, S. T. (2006). Dehumanizing the lowest of the low: Neuroimaging responses to extreme out-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7*(10), 847-853.
- Haslam, N. (2006).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3), 252-264.
- Haslam, N., Bain, P., Douge, L., Lee, M., & Bastian, B. (2005). More human than you: Attributing humanness to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937-950.
- Haslam, N. & Loughnan, S. (2014). Dehumanization and inhumaniz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399-423.
- Haslam, N., & Loughnan, S. (2016). How dehumanization promotes harm.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and evil, 2*, 140-158.
-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이형권 편역). 신영사. (원서출판: 2013)
- Ho, A. K., Sidanius, J., Pratto, F., Levin, S., Thomsen, L., Kteily, N., & Sheehy-Skeffington, J. (2012).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evisit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583-606.
- Hodson, G., & Costello, K. (2007). Interpersonal disgust,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dehumanization as predictors of intergroup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18*(8), 691-698.
- Hodson, G., Hogg, S. M., & MacInnis, C. C. (2009). The role of “dark personalities” (narcissism, Machiavellianism, psychopathy),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ideology in explaining prejudi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4), 686-690
- Jackson, L. E., & Gaertner, L. (2010).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and their differential use by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in support of war. *Aggressive Behavior, 36*(4), 238-250.
-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209-232.
- Kauff, M., Asbrock, F., Thörner, S., & Wagner, U. (2013). Side effects of multiculturalism: The interaction effect of a multicultural ideology and authoritarianism on prejudice and diversity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3), 305-320.
- Kelman, H. C. (1973). Violence without moral restraint: Reflections on the dehumanization of victims and victimizers. *Journal of Social Issues, 29*, 25-61.
- Kteily, N. S., Sidanius, J., & Levin, S. (2011).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Cause or ‘mere effect’?: Evidence for SDO as a causal predictor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and racial out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1), 208-214.
- Kteily, N., Bruneau, E., Waytz, A., & Cotterill, S. (2015). The ascent of man: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for blatant dehum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5), 901.
- Kteily, N., Hodson, G., & Bruneau, E. (2016). They see us as less than human: Metadehumanization predicts intergroup conflict via reciprocal dehum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3), 343.
- Landry, A. P., Ihm, E., & Schooler, J. W. (2022). Hated but still human: Metadehumanization leads to greater hostility than metaprejudic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5*(2), 315-334.
- Leyens, J. P., Paladino, P. M., Rodriguez-Torres, R., Vaes, J., Demoulin, S., Rodriguez-Perez, A., & Gaunt, R. (2000). The emotional side of prejudice: The attribution of secondary emotions to ingroups and out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86-197.
- Leyens, J. P., Rodriguez-Perez, A., Rodriguez Torres, R., Gaunt, R., Paladino, M. P., Vaes, J., & Demoulin, S. (2001).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the differential attribution of uniquely human emotions to ingroups and out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4), 395-411.
- Lindén, M., Björklund, F., & Bäckström, M. (2016). What makes authoritarian and socially dominant

- people more positive to using torture in the war on terror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1, 98-101.
- Maoz, I., & McCauley, C. (2008).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1), 93-116.
- McFarland, S. (2010).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and other roots of generalized prejudice. *Political Psychology*, 31(3), 453-477.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4), 371.
- Milgram, S. (2009). 권위에 대한 복종 [Obedience to Authority]. (정태연역). 예코리브르. (원서출판: 1974)
- Mudde, C. (1999). The single-issue party thesis: Extreme right parties and the immigration issu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82-197.
- Olonisakin, T. T., & Adebayo, S. O. (2021). Xenophobi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39(3), 484-496.
- Opatow, S., Gerson, J., & Woodside, S. (2005). From moral exclusion to moral inclusion: Theory for teaching peace. *Peace Education*. 303-318. Routledge.
- Perry, R., Sibley, C. G., & Duckitt, J. (2013). Dangerous and competitive worldviews: A meta-analysis of their associations with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1), 116-127.
- Pereira, C., Vala, J., & Leyens, J. P. (2009). From infra-humanization to discrimination: The mediation of symbolic threat needs egalitarian norm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2), 336-344.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 Schüller, S. (2016). The effects of 9/11 on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education. *Kyklos*, 69(4), 604-632.
- Sidanius, J., Levin, S., & Pratto, F. (1996). Consensu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with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merican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3-4), 385-408.
- Sidanius, J., Cotterill S., Sheehy-Skeffington, J., Kteily, N., & Carvacho, H. (2017) *Social dominance theory: explorations in the psychology of oppressio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149-187.
- Sirlopú, D., & Van Oudenhoven, J. P. (2013). Is multiculturalism a viable path in Chile? Intergroup and acculturative perspectives on Chilean society and Peruvi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6), 739-749.
- Symeonaki, M., & Kazani, A. (2012). Measuring xenophobia in Greece using neural network and fuzzy techniques. *Stochastic Models and Data Analysis* June.
- Thomsen, L., Green, E. G., & Sidanius, J. (2008). We will hunt them down: How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fuel ethnic persecution of immigrants in fundamentally different way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6), 1455-1464.
- Trounson, J. S., Critchley, C., & Pfeifer, J. E. (2015). Australian attitudes toward asylum seekers: Roles of dehumanization and social dominance theor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3(10), 1641-1655.

- Ullah, A. A., & Huque, A. S. (2014). *Asian immigrants in North America with HIV/AIDS: Stigma, vulnerabilities and human rights*. Springer.
- Ullah, A. A., & Haque, M. S. (2020). *The migration myth in policy and practice: Dreams, development and despair*. Springer Nature.
- UN. (201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 N/G16/097/20/PDF/G1609720.pdf?OpenElement>
- Vaes, J., Paladino, M. P., Castelli, L., Leyens, J. P., & Giovanazzi, A. (2003). On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inhumanization: the implicit role of uniquely human emotions in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16.
- Vallejo-Martín, M., Canto, J. M., San Martín García, J. E., & Perles Novas, F. (2021).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The importance of social context, ideological postulates, and perception of outgroup threat. *Sustainability, 13*(9), 4993.
- van der Veer, K., Ommundsen, R., Yakushko, O., Higler, L., Woelders, S., & Hagen, K. A. (2013). Psychometrically and qualitatively validating a cross-national cumulative measure of fear-based xenophobia. *Quality & Quantity, 47*(3), 1429-1444.
- Ward, C., & Masgoret, A. M. (2006). An integrative model of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6), 671-68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Yakushko, O. (2009). Xenophobia: Understanding the roots and consequenc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1), 36-66.

1 차원고접수 : 2023. 06. 19.

수정원고접수 : 2023. 08. 26.

최종게재결정 : 2023. 08. 26.

The Relations between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Xenophobia: The Mediating roles of Dehumanization

Myungsim Jun

Youngsun Lee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and xenophobia, an exclusive and discriminatory attitude toward immigra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dehumanization of immigrants in these relations. RWA and SDO have been noted as predictors of prejudice against many outgroups, and dehumanization was considered as important mediating variables in this relations because it may justify and perpetuate xenophobia. For these purpos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nationwide. After excluding unreliable responses, a total of 191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1 and PROCESS Macro v4.1 programs. The results showed that RWA, SDO, dehumanization towards immigrants and xenophobia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In addition, RWA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dehumanization on xenophobia, whereas SDO had only an indirect effect through dehumaniz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RWA and SDO are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that can predict xenophobia, and have indirect effects through dehumanizing perceptions of immigrants in these relationships, respectively.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xenophobia,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dehumanization, immigrants*